



동우컴퍼니

악을 악이라 말하라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최악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죄다.

주의 종들 중에는 성도가 악을 행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충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왜? 성도가 떠날까 봐.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공의가 아니던가. 성경은 그런 자를 짓지 못하는 개에 비유했다(사56:10).

나는 짓지 못하는 게가 되고 싶지 않다. 성도들이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나는 그가 들든 안 들든 내가 해줄 말은 꼭 한다. 예전에 어느 배우가 무당 역할을 하길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그 역할은 하지 말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그 배우는 ‘연기인데 어찌냐’며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어느 젊은 배우는 내 말을 경청하고는 영화를 시작할 때 다들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절을 하는데도 쫓쫓이 내 말대로 신앙을 지켰다. 그는 지금 누구나 동경하는 스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5:37).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는 뜻이다. 악을 보고 묵인하는 것은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헤롯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모든 자들은 그것이 악인 줄 알았지만 하나 같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한 사람, 요한만은 ‘그 일은 옳지 않다.’(막6:18)고 당당히 말했다. 이 때문에 요한은 목이 잘렸지만, 죄에 대해 침묵하여 수치스럽게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값진 삶이 아니겠는가. 만일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에게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했더라면, 과연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까.

짓을 때 짓을 즐 알아야 명견이거늘 하나
님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말을 못한다
면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일 아닐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시58:1).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된 지난 수
요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살기 원하
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셨다.

“이 마이크는 내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 해줍니다. 이 마이크는 아무 의지가 없고 단지 내 말을 그대로 증폭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종은 성령에 감동되어

랑 말고 그 마이크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강대국 미합중국의 참모총장 쫓겨오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 사지가 말이 아닌 것ですよ.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히브리 계집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정보를 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계집종의 말을 흘려듣지 않은 걸로 봐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만 합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를 고하자 그를 사랑하는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며 이스라

나'고 그의 노를 가라앉힙니다. 나아만은 병 낫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워낙 컸기에 그 말에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다. 그러나 주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일곱 번 씻고 나오자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왕하 5:1~14). 예수께서도 나아만을 칭송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눅4:27).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오전 목회자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집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체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마 23:2~3)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 그 말은 듣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시원찮으면 주인이 버리고 좋은 것으로 바꿉니다. 주의 종이 시원찮으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를 판단할 생각일

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드립니다. 이 소식에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옷을 찢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왕을 안돈시키며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무도 당당히 엘리사의 우거에 도착한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 요단강물에 일곱 번 씻으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이 기가 차서 ‘아니 우리 땅엔 강물이 없다더냐. 직접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환부에 손을 대고 문둥병을 고쳐줄 걸 기대하고 왔더니’하고 노를 발하며 돌아가려 합니다. 한 마디로 ‘왜 세계 안 해주냐’ 이겁니다. 이에 종들이 황급히 나서서 ‘병만 낫는다면 더 큰 일도 마다하겠

세미나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도하러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집에서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집회에 데려오라 했더니 기도만 해주셔도 고쳐주실 걸 믿는다는 겁니다. 즉시 그 종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아비에게 기도할 때 집에 있던 아들이 열이 내리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종이 말과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9:1~12)

예수님이 모든 규제를 혁파하셨습니다

규제가 심하면 전진도,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계는 늘 정부를 향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억압하는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규제가 심하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대국, 경제 강국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려면 기업들의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규제를 혁파(革罷)하는 것을 개혁(改革)이라 합니다.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틴 루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이 장사 터가 된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엮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요2:13~16).

삶에도 신앙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야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확물이나 가축을 흠 없이 가져와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오면서 가축이나 수확물을 흠 없이 가져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거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면 편리할뿐더러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지도급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파는 물건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기네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고 하시며 근본적 개혁을 암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근원적인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9:9~10).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소에는 등대와 상, 진설병이 놓여있고, 지성소에는 향로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나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

렸습니
다 (히
9:7~8).

그러나 이러한

장막의 예법으로는 성도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불완전한 규례들과 의식들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사 단번에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1~12).

그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잡한 규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히7:27).

그래서 지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시인만 하면 죄를 사함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요1:12~13)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지만, 지금은 모든 규제가 풀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福音)입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지요. 솔직히 저도 구약시대 제사장을 했더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어찌 소화해낼지 암담할 뿐입니다. 성도들 역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요새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번잡

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잡한 절차를 혁파하고 개혁을 이뤄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규제가 심하면 발전이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사와 더불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 이 세상과 내세에서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곧 사명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제가 지구촌을 매우 밟듯 하며 세계 각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1:17). 제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들이 규제나 제약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복된 소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믿을까 봐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요4:48).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알리지 않으면 창고에서 썩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드려 개혁을 이룬 사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리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3~14).

당신의 피를 뿌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가상화폐의 비밀

중국 내 인터넷금융연합, 은행연합, 지불 결제연합 3개 단체에서는 2021년 5월 18일자로 가상화폐의 등록, 거래, 지불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내몽고 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지역의 포괄적 정화 및 개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채굴업체가 발견될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설치되었다고 영국의 FT(파이낸셜 타임스)가 2021년 5월 2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지역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규제조치를 해왔으며 해외시장의 반응이나 여파와는 상관없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DCEP) 도입을 검토했고, 2020년 4월에는 가상환경을 조성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파일럿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2개월 전 고점대비 40%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은 패닉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가매수나 몰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의 저명한 시장전문가들은 폭락의 가능성에 대하여 확정적 혹은 중립의견조차 제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거래 시장은 투기시장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이면에는 국가 간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시장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액자산가가 밀집된 유럽 및 중동의 경우 미신고 현금자산을 대형은행을 통하여 제3국으로 이체할 경우 총 거래금액의 30~50%를 취급수수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가상화폐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지만 그들만의 세력을 연합하여 하락장에서 취득가액 대비 70%만 유지한다면 잘 분산된 1억 명의 불특정 다수인들의 자산을 프로그램에 따라 하락시점에 저가매수를 한 후 상승 포인트에 매도하여 그들의 자산을 완전히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래차익까지 실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보도되는 뉴스나 공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작전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대중적 참여자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일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동시에 심판하셨습니다.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라’는 말씀, 곧 매사 여유를 갖고 심사숙고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유념할 때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집사

:: 성경에세이 ::

다 이를 거야!

여보게! 인천에서 주일에배가 끝나고 성도들을 인수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아내와 어린 손녀가 내게 다가왔다네. 내가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손녀의 할머니인 권사님이 “애가 목사님께 할 말이 있대요.” 하길래 내가 고개를 숙여 손녀에게 귀를 갖다 댔더니 글썽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았다고 흉내 내면서 이르더라고. 옆에서 웃고 있던 권사님은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머리를 살짝 건드렸는데, 목사님 할아버지에게 이른다고 버르고 있다가 오늘 온 거예요.”라고 말해줬네. 나는 그 손녀에게 “목사님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혼내줄게.”라고 약속했더니 속이 풀리는 듯 웃지 뭐가.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 손녀가 생각이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네. 그런데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랐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0). 그 손녀가 나에게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천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이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매일

천사의 보고도 받으신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여보게! 사람들은 천사를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천사는 실제로 있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동시에 성령을 받은 자들을 돕는 존재이기도 하다네(히 1:14).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 그 소리에 여자아이가 나가보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미쳐 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구나, 네가 그의 천사를 본 거야.”라고 했네. 맞네.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네. 우리 장로들이 나더러 제발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겠는가. “최고의 경호원이 내게 있다.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항상 다닌다.”라고 했지.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늘에 있는 기도의 독에 부어 넣기도 한다네(계8:3~4). 자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게나.

봉우

작은 것도 아껴라

임진왜란 때의 재상 오성 이항복의 어렸을 때 이야기다. 항복은 대장간에서 낮이나 호미를 만들며 그 끄트머리 쇠불이를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상놈이 버린 것을 손으로 줍기는 그래서, 그는 노는 체하고 엉덩이로 그것을 모아 아무도 보지 않게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대장장이도 눈치를 채고 말았다. 그래서 한 번은 뜨거운 쇠를 버려 항복의 엉덩이를 데게 하기도 했다. 세월이 지나 항복이 성인이 되었고, 더불어 대장장이는 늙었다. 성인이 된 항복이 가난하고 초라한 대장장을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불렀다. 왜 부르는가 싶어 온 대장장이를 향하여 항복이 말했다. “나는 영감이 이렇게 되리라 미리 짐작

했었소.” 대장장이는 이 말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항복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항복이 다시 말문을 연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쇠불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낭비였소. 그것들을 녹이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는데 팔이요. 내 집 창고에 가 봅시다.” 하여 대장장이가 창고에 가보니 자기가 버린 쇠불이가 가득 쌓여있었다. “내가 그간 가져온 쇠요. 그러나 당신 것이니 가져가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오!” 10원이 모여 100원이 되는 것이고, 100원이 쌓여 1,000원이 되는 것이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작은 것 때문에 울 날이 꼭 오고야 만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아껴라.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소망의 언덕 ::

그날이 도적같이

지난 5월 15일 토요일에 중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총회장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사전에 어떤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고 제 마음에 남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교사들과 학생, 그 누구도 목사님께서 그날 중고등부에 찾아오실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순간에 총회장 목사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겠구나.’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너무 반가웠지만, 솔직히 당황도 했습니다. 평소에 모든 면에서 준비가 완벽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 그날이 오면 기쁘지만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할걸.’, ‘내일 한다고 미루지 말고 어제 해놓을걸.’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니다. 목사님은 ‘내일은 우리 권한 밖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을 중점으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샘플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찬양을 하셔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일을 하셔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식사조차 하지 않으시는 목사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일생의 롤모델 삼아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신들메도 감당할 수 없지만, 제 보폭으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주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주의 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홀연히 오십니다. 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됩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2~3).

이현승 목사

:: 에덴으로 귀환 ::

:: 빛이 되리라 ::

하나님의 계획

지난 3월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우리 회사에 큰 싱크홀이 뚫려 그곳을 통과해야 하는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통과하였지만 기도하라는 경고임을 깨닫고 최문선 차장과 함께 3일 금식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 수유 중에는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무사히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 하나의 악플 없이 평판이 꽤 좋았는데, 새로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업체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매출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면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기도한 후 찾아온 시험인가보다.’ 생각하며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업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것을 암시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추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협조를 구했고, 가해자들이 나쁜 댓글을 달지 못하게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일에배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금식기도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3일 금식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온 가족에게 3일 금식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금식기도를 한지 딱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모유수유 때문에 고생을 해서 관촬을까 염려하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잘 버티다가 마지막 날엔 젖이 말라 수유할 때마다 이삭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젖이 모자라 흐느껴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평평 울며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이 어린 아기까지 이렇게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업에 꼭 큰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승리한 기쁨을 만끽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5월 10일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동경찰서인데 거래처에서 저와 최문선 차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인데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았으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사기라니요? 너무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금식 후 찾아오는 시험이라지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3일 금식기도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고 하였고, 에스더는 3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금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서를 가야하나요? 아,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정말 화가 나고 야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며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사건 때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도 맡기게 되었고, 얼마 지나서 변호사가 입수한 상대측 고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날은 5월 10일이라 5월 초에 고소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소를 준비한 날짜는 제가 꿈을 꾸었던 시기였고, 중간에 고소장이 수차례 수정되어 5월 10일이 되어서야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경고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이며, 결국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인데, 저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왜 시련만 오는지 모르겠다고 철없이 징징거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만 잠잠하신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비록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저 앞에 빛도 보이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어두컴컴한 터널 끝에서 밝은 영광을 차지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놀라게 되겠죠? 그 날을 또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김은유 집사
ceo@edenique.co.kr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암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양자의학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나 지구에 있는 다양한 물질과 물체, 공기중에 있는 것은 모두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와 세균도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신기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 질병은 자신의 정신과 심층 심리가 주파수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 것으로 파악하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양자의학에서 말하는 암이 주는 내면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간암은 해독을 하는 장기로 과도한 술이나 음식첨가물, 약물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분해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준다. 간은 오랫동안 분노를 쌓아오거나 독설을 통해서 쏟아내고 싶은 감정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둘째로 위암은 무엇인가를 소화하지 못해서 병이 생긴다. 여기에서 소화란 단지 영양분의 소화뿐 아니라 가족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의미 등을 소화하는 뜻도 있다.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달콤한 것을 추구한다면 위가 점차적

으로 약해진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지나치게 공감받기 원하고 동정받기 원하고 의존적이기 원하는 경우 내 안의 중심이 약하고 자립하지 못하여 위장이 약해진다고 한다.

셋째로 폐암은 호흡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호흡이란 복식 호흡도 의미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숨죽이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 폐는 슬픔과 근심의 감정이며, 죄책감을 자주 쌓아가는 사람이 폐질환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목소리를 높여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병이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로 대장암은 배설이 되지 않을 때 병이 생긴다. 배설이란 음식물의 배설도 있지만, 죄책감, 슬픔을 배출하는 것도 의미한다. 대장은 폐처럼 주기적인 호흡을 통해 배출하지 않지만 한 번에 대변으로 내보내야 하며, 깊은 원한이나 집착과 같은 생각들의 배출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섯째로, 신장암 역시 배설이 안 되어서 병이 생긴다. 음식물이 아닌 물의 배설의 의미로 물은 돈으로 보기도 하며 불

안이나 두려움으로 보기도 한다. 신장은 피를 담당하고 빈혈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혈류량이 나빠져서 작은 일에 고민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혈액암은 심장과 관련이 있고, 심장은 사랑과 긴장의 장기이며 연애, 가족관계, 친자관계 등과 관련이 되어있다고 한다.

인생을 살면서 사회적, 금전적, 가족 간의 어려움들은 단순히 그 문제뿐 아니라 암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시사해준다. 내 안에서 부모에 대한 갈등, 주변인에 대한 원망,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망, 체면, 금전욕, 명예욕, 권위욕, 공포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을 깨달은 암환자는 비약적인 회복을 보인다고 한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처럼, 현재 내 문제의 원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보며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배웠다면 실천해보자

섬기던 목사님께서로부터 예전에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다.

맘에 드는 한 처소를 발견했을 때, 그곳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우리가 잡아둔 곳이니 ‘예수 이름으로 아무도 먼저 가져가지 않을지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과거 지교회에서 맘에 드는 성전을 미리 잡아둘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묶어 뒀던 처소가 한참이 지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묶여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나중에 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다.

최근에 비슷한 일이 나에게도 생겼다. 개인적으로 이사할 일이 있었는데 맘에 드는 한 장소가 생겼고 그곳을 꼭 잡고 싶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같은 방법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 다행히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서 그 집 일은 잊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아내가 인터넷으로 주변 집 검색을 해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집이 아직도 안 빠졌는데?” 아뿔싸, 다른 곳 계약했으면 그 집은 풀어줬어야지, 까맣게 그 일을 잊고 있었다. 가슴 한 칸에 죄송한 마음을 담아 묶여있던 그 집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힘을.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비록 작은 간증이지만 늘 깨닫게 하시고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17~18).

장명훈 집사

